Tip Toland

A Fairy Tal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Invitational Exhibition of Grand Prize Winner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2019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19국제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팁 톨랜드

동화

Tip Toland

A Fairy Tale

팁 톨랜드

동화

Editor's Note

1 This catalogue wa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Tip Toland's A Fairy Tale held at th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during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KICB2021). It was presented as an incentive to the Grand Prize winner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2019.

2 Korean and English are used as official languages. Romanization was done according to the rules for foreign language orthography of the Korean government.

3 The text on the artist, and only his most recent major accomplishments were included due to space limitations

4 All of the plates included in this catalogue are photo images provided by the artist or were photographed by the KOCEF.

일러두기

1 본 도록은 2019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수상자에 대한 수상 혜택의 일환으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개최된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초대전 〈팁 톨랜드: 동화〉를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2 수록 언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하되, 한글 외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실제 독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작가와 작품의 모든 정보는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지면 관계상 최근 순으로 일부만 기재하였다.

4 수록 도판은 작가가 제공한 사진이미지와 재단에서 촬영한 사진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Contents

Greetings 08
Yun Choi, President of the KOCEF
Curator's Note 10
Artist's Note 14
Tip Toland
Images 18
A Fairy Tale Can Come True: Stories from Tip Toland 31
Judith Schwartz
Artist's Statement 38
Biography 58

목차

인사말 09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 연
큐레이터 노트 11
작가의 글 16
팁 톨랜드
도판 18
동화가 현실이 되는 팁 톨랜드 이야기 31
쥬디 슈왈츠
작가노트 38
작가이력 60

Greetings

It is a great pleasure to host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marks its eleventh anniversary this year.

The theme of the 2021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Re: Start*. It presents new experimentation and production process, and shows the will to break the boundaries of genre.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iennale, we aims to examine the role and meaning of ceramics after the post-corona period, and to deliver a message of healing and hope through artists' contributions.

This year, the exhibitions, related to the Biennale, will be held in Icheon, Yeoju, and Gwangju as well as Online to demonstrate the contemporary ceramics to people around the world. We make the Covid-19 pandemic as an opportunity to expend the field of ceramic art and suggest the way that ceramics should take by providing Online Platform(www.kicb.or.kr)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had been held since 2001, will continue to lead ceramic culture and achieve ceramics in everyday life, globalizing, and innovative ceramic art. I hope that ceramic art could be a hope for everyone during this difficult time.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ll the person in charge who tried hard to open the international event.

Yun Choi
President
Korea Ceramic Foundation

대표이사 인사말

올해로 열 한 번째를 맞이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주제는 '다시 쓰다 Re:Start' 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시도와 제작 과정을 표현하고 작품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비엔날레는 과거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자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보고, 예술적 기여를 통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비엔날레 전시는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도 개최하여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현대도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라인플랫폼(www.kicb.or.kr)을 통해 도자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 도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이어져온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앞으로도 도자예술문화를 선도하며 도자문화의 생활화, 세계화, 혁신화를 이룰 것 입니다.

힘든 시기 많은 분들에게 도자문화예술이 위로가 되길 바라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각국의 모든 작가분들과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Curator's Note

Tip Toland creates figurative clay sculpture. She produces stunningly exquisite human statues. She uses wax to express human skin and actual hair or artificial hair to realistically express the human body. Any viewer who encounters any one of her works is first overwhelmed by its sheer scale. What is even more astonishing to the viewer is the exquisite expressiveness of the figure. Each one communicates human emotion as if it were alive.

Tip Toland's figurative sculptures powerfully impart human feeling, despite being inert objects. This induces the viewer to see that Tip Toland is exploring the essence of humanity. Saying her works are based on her own face, Tip Toland mirrors herself in them. To be sure, she naturally sees herself most and knows herself best, and I believe that she has decided to use herself to express human feeling as forcefully as possible.

Tip Toland aspires to portray the human ego rather than simply project images. Her works show the full spectrum of human characteristics. Her ability to bring up human psychology from very deep levels spurs the viewer's imagination and thought, allowing the viewer to interact with her works. This is key to observing her works.

I am very pleased and honored to invite Tip Toland, a great ceramic artist known for perfection of technique and unique ability, to communicate her philosophies through her work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thanks and respect to her for her perseverance and the tremendous energy she has put into her art for so many years.

Minhye PARK
Curator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큐레이터 노트

팁 톨랜드는 도자 인물상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놀랍도록 정교한 인체상을 제작한다. 사실적인 인체표현을 위해 왁스를 이용하여 피부를 표현하고, 실제 혹은 인공 머리카락을 활용한다. 작가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 크기에 먼저 압도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이유는 그 인물상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섬세한 표정 표현 때문이다.

팁 톨랜드의 인물상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인간 내면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내뿜어 낸다.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작가의 표현력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의 토대는 본인 얼굴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작품에 투영시킨다. 작가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스스로일 것이다. 작품의 외형이나 내면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녀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팁 톨랜드는 단순히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자아를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간상을 볼 수 있고, 내면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가의 능력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을 불러일으켜 작품과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점이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기술의 완성도와 작품에 대한 높은 표현력을 가진 위대한 예술가 팁 톨랜드 작가님을 초대전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인물 군상 도자 작업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팁 톨랜드 작가님께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박민혜
경기도자미술관 큐레이터

Artist's Note

" Fairy Tale"

" Fairy Tale" is a story about Ego. I was thinking about ego and all of its aspects and how it is continually referred to as perhaps the biggest obstacle on the spiritual path. At the same time I was reading fairy tales and the lessons to us as children about good and bad, foolishness and the perils and pitfalls which await when we do not heed our good sense and the wisdom of our elders.

So I thought I would illustrate Ego through a tale about a greedy King whose only ambition was to enhance his own pride and glory by way of adding more and more gold on to his crown making it the greatest in "All the land". He did this by having his men steal and pillage the gold in every surrounding kingdom to bring back to his castle and melt on to his own crown. It was never enough and so he ordered more gold every year to be stolen, brought back and melted on to his huge crown. The only time he took it off was so that more gold could be melted on to it, otherwise he was always seen wearing it, even to bed! The crown grew larger and larger but also heavier and heavier so that eventually his neck bent over and twisted making it so he couldn't hold up his head. This caused him agonizing pain. Still the king refused to take off his crown and insisted that even more gold be melted over it, so that its gleam could be seen from many kingdoms away. One day, when he was giving orders for another raid of a faraway kingdom, the kings neck snapped and he died a cruel death.

Our ego always wants to be right and to enhance itself. Its opposite is humility. I thought one way to speak about humility visually is through the pie in the face. Although it is an old vaudeville shtick, it also, in a humorous way, stops the ego if only momentarily. "The Three Sisters from Auld" have all been pied and are stopped in their tracks unable to carry out their night at the dance. This is not necessarily evident through the work but this can act as a symbol of a path to free us from Ego for whomever can see it through that lens. The path of Ego will only

lead eventually to isolation and suffering but the path of humility might have us seem foolish yet will redeem us eventually.

The masks are the "Fools that Watch". They are all of us who witness this play of egoism and foolishness every day in so many blatant and subtle ways. We are all a mix of both. However in Fairy tales we need examples that leave no ambiguity. They become the universal warning posts learned as children which we can take with us through the rest of our lives.

Tip Toland

작가의 글

"동화"

작품 〈동화〉는 자아(ego)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아에 대하여, 자아의 모든 양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아가 정신적인 행로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어떻게 끊임없이 언급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어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이 맞게 될 선과 악, 어리석음과 시련 그리고 함정에 대한 교훈을 주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나는 동화를 읽으면서 자신의 왕관에 더 많은 금을 입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관을 만들어 자신의 자부심과 영화를 높이겠다는 단 하나의 야망만을 가진 탐욕스러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왕은 부하들을 시켜 왕국의 곳곳에서 훔치고 약탈한 금을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와서 녹인 후 왕관에 덧붙이게 하였습니다. 왕은 매년 더 많은 금을 훔쳐 와서 녹인 후 왕관에 덧붙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왕은 왕관에 금을 붙이는 작업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잘 때 조차도! 왕관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결국은 왕의 목이 앞으로 굽어지고 뒤틀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왕은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왕관을 벗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많은 왕국에서도 빛나는 왕관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을 녹여 왕관에 붙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또 다시 멀리 있는 왕국을 급습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던 중 목이 부러져 무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항상 자신만이 옳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아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나는 겸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파이를 뒤집어 쓴 얼굴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가 비록 상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익살스러운 광경은 일시적이라도 자아의 이기심을 멈추게 합니다. 〈올드의 세자매〉는 모두 얼굴에 파이를 뒤집어 쓰게 되어 그 날 밤 무도회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의도된 메시지를 반드시 명백하게 전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관람객들에게 자아의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아의 행로를 택한 자들은 결국 고립과 고통을 맞게 될 것이지만 겸손의 행로를 택한 자들은 어리석게 보일 지 모르지만 결국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마스크는 "보고 있는 바보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마스크는 노골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너무나 많이 날마다 벌어지는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의 게임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호하게도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에서는 애매모호함을 철저히 배격하고 명확한 본보기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동화를 통해 얻게 된 교훈들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일생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팁 톨랜드

As if in a story, each character represents a moral choice, and can be best understood by thinking of them through the lens of a Fairy Tale

마치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각각의 캐릭터는 도덕적 선택을 상징하고 있다. 동화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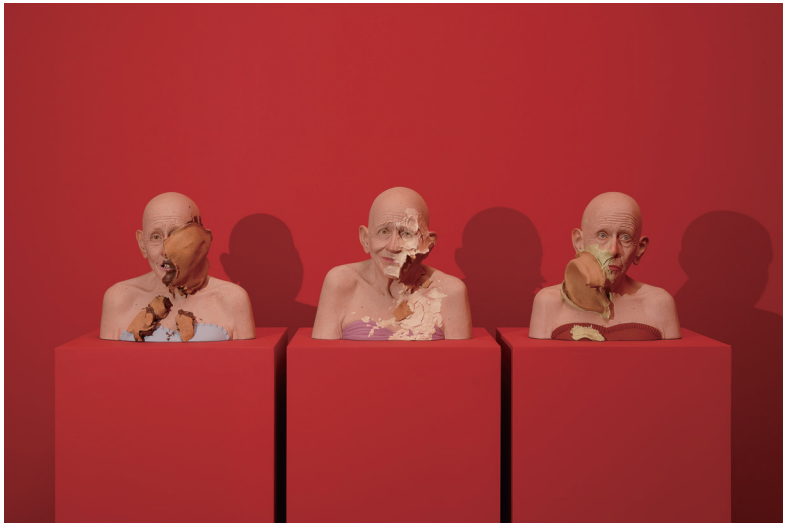
A symbol or archetype of ego, lacks concern for anyone or anything not of value to him. So much so, that he steals and pillages all the gold from surrounding kingdoms, despite the grave suffering of the people, to melt on to his already massive crown.

자아의 상징이자 전형으로 자신에게 가치가 없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관심이 없다.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왕은 이미 거대한 왕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더 크게 만들 요령으로 백성들의 깊은 시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을 훔치고 강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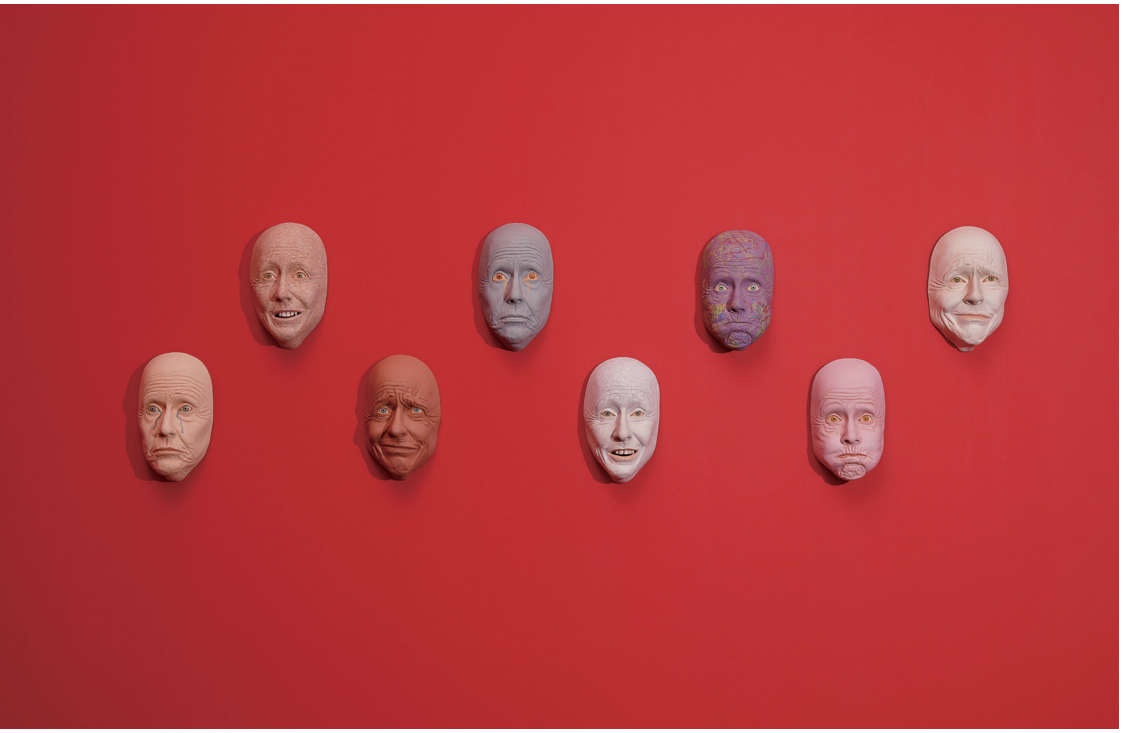
The Greedy King, 2021
stoneware, glaze, lusters, paint, chalk pastels
탐욕스러운 왕, 2021
석기점토, 유약, 리스터, 채색, 초크파스텔
147 x 109 x 147

These three women all dressed up for the dance, were “surprised by three pies” are examples of the dissolution of ego. Vulnerable and bald they are made to look foolish and are without defense.

무도회를 위해 옷을 차려 입은 세 명의 여인의 “파이로 놀라는” 모습은 자아 해체의 예시를 보여준다. 취약하고 벌거벗은 모습은 어리석고 무방비해 보인다.



Three Sisters from Auld, 2021
stoneware, paint, chalk pastels
올드의 세 자매, 2021
석기점토, 채색, 초크파스텔
43 x 30 x 38



Masks, 2021
stoneware, paint, chalk pastels
마스크, 2021
석기점토, 채색, 초크파스텔
15 x 10 x 22

The masks reflect the journey from Humility to Egoism, and the disease reflected in each stage.

이 마스크는 겸손에서 이기주의에 이르는 여정과 함께 각 단계가 안고 있는 질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9 국제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팁 톨랜드 : 동화 -자아에 대한 이야기-

Invitational Exhibition of Grand Prize Winner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2019

Tip Toland : A Fairy Tale

팁 톨랜드의 〈동화〉는 자아(ego)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치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각각의 캐릭터는 도덕적 선택을 상징하고 있다. 동화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아의 상징이자 전형인 탐욕스러운 왕"
자신에게 가치가 없으면 대상이 누구든 무엇이든 관심이 없다.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왕은 이미 거대한 왕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더 크게 만들 요량으로 백성들의 깊은 시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을 훔치고 강탈한다.

"자아의 반대, 겸손을 상징하는 세 명의 여인"
무도회를 위해 옷을 차려입은 세 명의 여인의 "파이로 놀라는" 모습은 자아 해체의 예시를 보여준다. 취약하고 벌거벗은 모습은 어리석고 무방비해 보인다.

"보고 있는 바보들"
마스크는 노골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날마다 벌어지는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의 게임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The Greedy King, a symbol or archetype of ego"
The King lacks concern for anyone or anything not of value to him. So much so, that he steals and pillages all the gold from surrounding kingdoms, despite the grave suffering of the people, to melt on to his already massive crown.

"Contrary to Ego, three women whose symbolize Humility"
These three women, all dressed up for the dance but were "surprised by three pies," are examples of the dissolution of ego. Vulnerable and bald they are made to look foolish and are without defense.

"Fools that Watch"
The masks are all of us who witness this play of egoism and foolishness everyday in so many blatant and subtle ways. They reminds us that We are all a mix of both.

더 자세한 〈동화〉 이야기는 온라인플랫폼에서
More detailed 〈Fairy Tale〉 stories is on the online platform.

A Fairy Tale Can Come True: Stories from Tip Toland
동화가 현실이 되는 팁 톨랜드 이야기

Judith Schwartz
쥬디 슈왈츠

Tip Toland has never shied from confrontation. For decades extraordinary characters in clay have emerged from her studio - characters that often confront subject matters most of us would find too personal to share privately let alone expose in the venue of a public gallery.

Her issues are painful, humiliating, often embarrassing. Yet she remains steadfast in her quest to portray them. In her astonishingly convincing revelations of our collective selves, she forces us to see us what we probably already know intuitively, but often lack the courage or resolve to reveal.

In one sense, Toland may be thought of as a satirist in the guise of a visual artist who focuses on the duplicity of the human condition. Using psychological introspection, dream imagery, fairy tales and the subconscious, she reveals an unerring concern for the human condition in all of its sometimes-unappealing manifestations.

Her themes are about loneliness, vanity, helplessness, rage, aging, isolation, and depression -there are few stones left unturned. She also had, from time to time, confronted social and political issues, exposing inequities to which we often turn a blind eye - forcing us to see those who are on the fringes of society, marginalized victims of the social condition, the vulnerable plight of refugees, poverty, suffering and disorientation. Yet as disturbing and uncomfortable her gaze, Toland's genius is her ability to posture her characters in ways that provoke deep feelings of empathy, identification, and compassion.

As a true portrayer of the human condition, she seduces the viewer into her world using ridicule, sarcasm, wit and humor

팁 톨랜드(Tip Toland)는 마주하기를 마다한 적이 없다. 지난 수 십년 간 작업실에서 탄생시킨 작가의 점토 작품들은 일반인이라면 공유하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작가는 이에 맞서 공공 갤러리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톨랜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당황스럽기까지 한 주제를 다루지만, 이러한 주제를 탐색하는 여정을 꾸준히 밟아왔다. 집단 자아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드러내면서 작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으나 드러낼 용기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도록 이끈다.

어떤 의미에서 톨랜드는 인간 조건의 이중성을 중시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가장한 풍자가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심리적 성찰, 몽환적 상상력, 동화, 잠재의식을 통해 작가는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작품을 통해 인간 조건에 관한 정확한 우려를 드러낸다.

고독, 허영, 무력감, 분노, 노화, 고립, 우울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석기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불평등을 드러내는 사회, 정치적 이슈와 마주하여 사회 소외계층, 사회 여건에서 소외된 희생자, 곤경에 처한 난민, 빈곤, 고통 및 방향상실에 처한 이들을 억지로 바라보게 만든다. 작가의 시선은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톨랜드의 천재성은 공감, 인지, 연민의 깊은 감정을 캐릭터를 통해 유발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인간 조건을 진정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작가는 조롱, 빈정거림, 위트, 유머를 활용하여 사회 개혁가로서 교묘히 조작된 작품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실제 톨랜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비주얼 철학자로서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진솔하며,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인간 조건의 보편성을 끌어냄으로써 관객을 꿰뚫고, 관객이 변화되도록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랄프 시케스의 통찰력이 가득한 저서『분개한 시선』에서

putting these cunning manipulations to work as a social reformer. Indeed, Toland is a visual philosopher who tells it as it is and unabashedly does so in ways that are so compelling, so honest and recognizable that she captures the universality of the human condition that inevitably leaves the viewer transfixed and transformed.

In Ralph Shikes insightful book, The Indignant Eye, he expresses the sort of zeitgeist that aptly describes Toland's oeuvre. "Such individuals have used the most effective weapon at their command, their art, to needle the Establishment, duel with oppressive governments, satirize corrupt or indifferent churches, strip bare the foul futility of war, attack exploitation, uncover the bleak existence of the poor and, in general, make visible comment on human folly in its infinite variations."

Her extraordinary skills are once again evident in her latest incarnation: *Fairy Tale*. In this newest body of work, she continues to tell stories in the guise of the artist but, in reality, she is more of a psychologist, an ethicist, a sage. Traditionally and historically, storytelling, in the form of fairy tales, has existed in every culture as a way of assisting children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daily living.

Toland not only has conjured stories that help us cope and confront the truth, but she also physically challenges our space with a scale that is so threatening, so overwhelming, and powerful that her message becomes even more aggressive

톨랜드의 전작(全作)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가장 효과적인 가용 무기인 예술을 이용해 기성세대의 신경을 건드리고, 폭압적 정부에 대항하며, 교회의 부패나 무관심을 풍자하고, 전쟁의 추악한 공허함을 낱낱이 벗기며, 착취를 공격하고, 절망적 빈곤층의 존재를 드러내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무한한 변화에서 오는 인간의 우둔함에 대하여 시각적 의견을 개진한다."

톨랜드의 특별한 기술은 최신 작품 <동화>에서 다시금 분명히 드러난다. 작가는 아티스트로 가장해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실제 작가는 심리학자, 윤리주의자, 그리고 현자로서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역사적, 전통적 관점에서 동화 형식의 스토리텔링은 일상 생활의 현실에서 어린이를 돕는 방식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존재해왔다.

톨랜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 대응하고 맞서는 데 도움을 줄 뿐아니라,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압도적이며,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간에 규모면에서 신체적 도전을 가함으로써 작가의 메시지는 더욱 공격적인 동시에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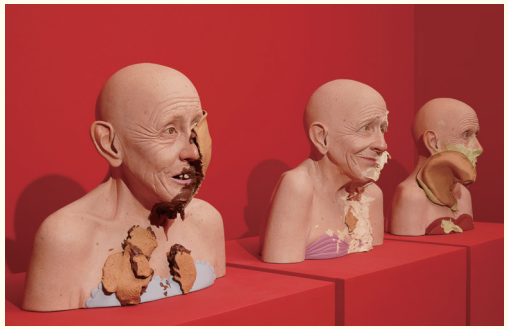
규모적으로 큰 도전이었던 실물 3배 크기의 <탐욕스러운 왕>은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점토의 '힘의 여정'은 고전 해부학 학습, 표면 세부내용에 대한 실험, 듣도 보도 못한 규모의 작품 제작 등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작가의 끈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작품은 아이러니, 패러디, 외설, 이미 경험했던 존재에 대한 그로테스크가 뒤섞여 진정한 위협을 느끼게 만

and convincing.

The Greedy King is three times life size - a physical challenge that took Toland more than a year to complete. This 'tour de force' in clay is typical of her tenacious spirit to master whatever is required to accomplish her vision - whether it be learning classical anatomy or experimentation with surface details or unheard-of scale.

The work is a mixture of irony, parody, obscenity, and the grotesque with a presence, that once experienced, is truly menacing. Toland tells us the work is based on a fairy tale she created in which "I made up a *Greedy King* whose pride drove him to pillage all the gold from the surrounding kingdoms to bring back and melt onto his crown. Over time the crown became so heavy and painful to wear it eventually broke his neck." Is it no coincidence that the golden crown may be viewed as a metaphor for the blond hair of a former president - a president whose egoism, greed and dishonesty knew no limits. A king with a crown so heavy that the neck has receded so far into the body that it can no longer support a head - while all the while a gaze so calculating, a smirk so naked and an expression so virulent that it reminds one of a gluttonous Jabba The Hut.



In another piece, *The Three Sisters from Auld*, Toland offers life size self-portraits of a woman dressed for a night out. They are captured at the very moment of experiencing the impact of a pie thrown into their faces. Taken together, they

든다. 톨랜드는 작품의 모티브가 자신의 창작동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동화는 "욕심쟁이 왕이 오만함으로 여러 왕국에서 모든 금을 약탈해 자신만의 왕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든 왕관이 너무 무겁고 쓰기 힘듦에도 계속 쓰다가 결국 목이 부러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금관은 어쩌면 끝없이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전직 대통령의 금발 머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무게 때문에 머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몸속 깊이 들어가 버리도록 만든 무거운 왕관을 쓴 왕은 줄곧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노골적으로 히죽거리며, 너무나도 치명적인 표정을 짓는 스타워즈 캐릭터 중 하나인 탐욕스런 자바 더 헛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톨랜드는 또 다른 작품 <올드의 세 자매>에서 밤 외출을 하려고 옷을 차려입는 한 여성의 자화상을 실물 크기로 선보인다. 이 작품은 얼굴로 던진 파이에 맞는 바로 그 순간의 충격을 묘사함으로써 함께 전시되는 <탐욕스러운 왕>의 자만심과 균형을 맞춘다.

작품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굴욕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뺨에 묻은 라임이 드레스로 떨어지는 모습에서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두 번째로는 초콜릿으로 인해 자부심이 초라함으로 바뀌는 치욕스런 표정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엄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바보스런 웃음으로 표출되는 자기혐오와 굴복의 표정을 보게 된다. 어쩌면 톨랜드 자신이 세 자매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의 이미지를 일종의 자전적 디딤돌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랩스틱 코미디를 사람의 얼굴을 향해 던진 파

provide a counterbalance to the King's self anointed importance.

We see three expressions of humiliation. One of total disbelief as the key lime drips from her cheeks onto her dress. The second, a look of mortification as the chocolate transforms the ego into feelings of lowliness, and the third, a smile of self-loathing and submission, a sort of foolish grin that strips bare any sense of dignity and self-respect. As an aside, it is probably no coincidence that Toland comes from a family of three sisters. She often uses herself or family images as a sort of autobiographical steppingstone to give voice to the expression of her intent.
While we associate slapstick comedy with pies being thrown in people's faces, Toland, the satirist, uses the guise of humor to suggest another side, the receiving end, the bullied, the victim, the humiliated.

Finally, we come to a series of masks, taken from the faces of *The Three Sisters*, but each showing the face of the artist with a different expression and a different surface treatment. Part of a larger series of *Masks*, some in color, others in black and white, these masks reveal the various faces that individuals can, but rarely show, the world. *Masks* are a format for experimentation, risk taking and personal challenge to present various states of expression in which the artist, with no preconceived goal in mind, creates a reversal in which normally hidden inner emotions become the outward masks for all to see.
In essence, by so doing, she has effectively reversed the role of masks. Brilliant.

이와 연관지을 때 풍자가인 톨랜드는 놀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또 다른 측면을 유머로 가장하여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자매> 얼굴에서 비롯되었으나 작가의 다양한 표정을 다양한 표면 처리로 제작한 일련의 마스크를 마주하게 된다. 연작 마스크의 일부로서 칼라 및 흑백으로 제작된 이번 전시회의 <마스크>는 개인이 세상에 드물게 보여주는 여러 얼굴 표정을 드러낸다. <마스크>는 실험, 위험 감수, 개인적 도전 등 다양한 표정을 선보이는데, 작가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감춰진 내면의 감정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외향적 마스크로 표출되도록 반전을 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본질적으로 마스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뒤집는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작가의 스타일이 공격적이고, 불편하며, 불손하게, 어쩌면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열정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다. 톨랜드에게는 예술과 작가의 구분이 없다. 예술과 작가는 분명히 하나다. 더욱이 톨랜드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적 반응을 사회 여건의 부정적 측면과 공유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좋게 말한다면 톨랜드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타인과의 연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적 좌절을 드러내는 정신적 존재이자 실존주의자이다.

놀랍고 힘든 뉘앙스의 감정 표현과정에서 점토는 톨랜드에게 이상적인 재료가 된다. 주름, 살결, 나이, 피부를 다룰 때에는 부드럽게 작업하지만, 불이 닿으면 부드러운 모습으로 굳게 된다. 점토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피부"가 살처럼 보이도록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다. 능수능란한 작가의 손에서 인체의 은유, 우리 시대의 이슈 전달,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점

While her style may be aggressive, disturbing, irreverent, and perhaps humorous, it is always passionate. For Toland, there is no separation between art and maker. They are clearly one and the same. Moreover, she is not afraid to share her complex emotional reactions to negative aspects of the social condition. For want of a better term, she is both an existentialist and a spiritual being-revealing personal turmoil in an attempt to resolve inner conflicts yet providing mean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In Toland's hands, clay becomes an ideal material to work her wondrous and laborious nuanced emotions. She works it soft recording wrinkles, flesh, age and skin - yet, when fired, it is hard, made to look soft. She is able to surface the "skin" to resemble flesh with all is flaws. In her masterful hands there is no better material to act as metaphor for the human body, to speak to the issues of our times, and the condition of the world.

Fi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k and its maker. To meet Tip Toland is to encounter a quiet, almost demure, non-assertive, non-confrontational individual. A person so different from the style and content of her work as to make one wonder how such powerful work could have emerged from this individual. It is this unlikely, but undeniable, juxtaposition that makes the work in this exhibition, in addition to all of its other splendid aspects, as extraordinary as it is.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Art and Art Professions
New York University

토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작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팁 톨랜드를 만나면 얌전할 정도로 조용하며, 주장이 강하지도, 대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도 강력한 작품이 탄생하며, 이렇게 다른 스타일과 내용으로 작품 세계를 펼치는지 의아하다. 의외이기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작가의 다른 모습은 여러 뛰어난 점과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미국 뉴욕대학교 예술학과 석좌교수

Artist's Statement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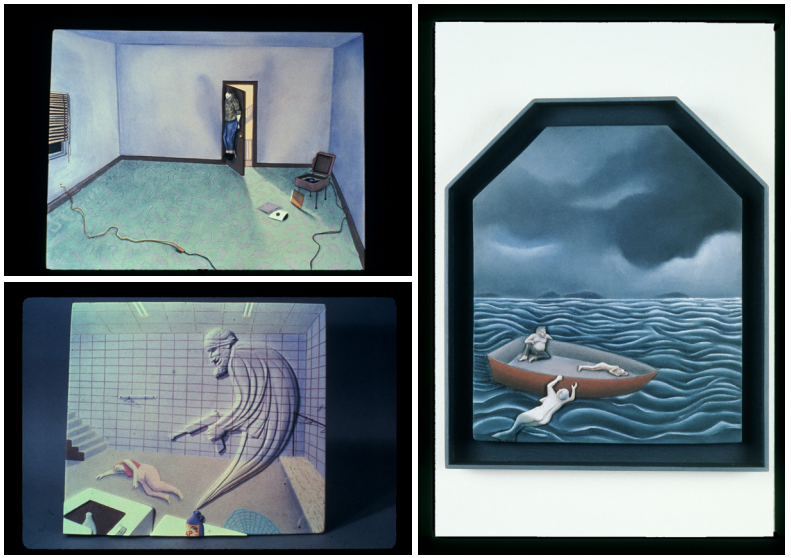
One summer when I was just about 6 or 7 years old, my family took us on a little motor boat to an inlet which was part of the Chesapeake Bay in Maryland. We had to anchor and walk ashore stepping in the most marvelous squishy slippery goop which was rust colored. I came ashore and my only thought was to get more of this goop and see what it was. This was my first encounter with clay. I remember making a mask with it and left it on that rock. This left a big impression on me however I didn't work with clay again until college. I entered college as a fine art major and in my pottery class all I wanted to do was to make surfaces I could draw on top of. I loved drawing. Drawing and Pottery remained separate until I entered Graduate school. Because I entered Grad school as a ceramics major, they strongly encouraged me to do something dimensional with the clay rather than simply draw on top of it. So, with some exceptions for the next 20 years I made bas relief clay paintings to be hung on the wall.

내가 여섯 살 인가 일곱 살 이던 어느 여름, 우리 가족은 작은 모터 보트를 타고 메릴랜드 주 체서피크베이에 있는 작은 섬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보트를 정박시키고 난 후 육지로 올라가기 위하여 질척질척하고 미끄러우며 마치 녹이 슨 것 같은 색을 띤 갯벌을 걸어 지나가야 했다. 어린 나에게 갯벌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어서 마음을 온통 빼앗겼다. 이 때 나는 진흙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다. 진흙으로 가면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남겨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때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 후 대학에 진학할 때 까지는 점토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도예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오로지 점토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면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였다. 도예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나에게 그림과 도예는 별개의 분야였다. 대학원 도예과에서는 나에게 단순히 점토 판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는 점토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였다. 그래서 그 후 20여년간, 물론 간혹 예외가 있긴 했으나, 점토로 벽에 걸리는 저부조 작품을 제작하였다.

Drawings, pencil on paper, age of 18
18살 때 종이에 연필로 그린 드로잉

To make a shallow wall reliefs in clay was so very different than being a painter. I loved the ability to make figures separate from the surface then play with the arrangement after firing. I could control the shape of the painting and frame it using clay. Mostly I loved carving clay in its hard, leather hard state to get the image rather than paint it.

점토를 사용하여 저부조를 만드는 작업은 그림을 그리는 일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표면에서 독립된 형태들을 흙으로 빚고 이들을 소성한 후에 배치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을 즐겼다. 점토를 사용하여 원하는 그림의 형태와 틀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주로 점토에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는 완전히 굳었거나 또는 반 건조된 점토를 조각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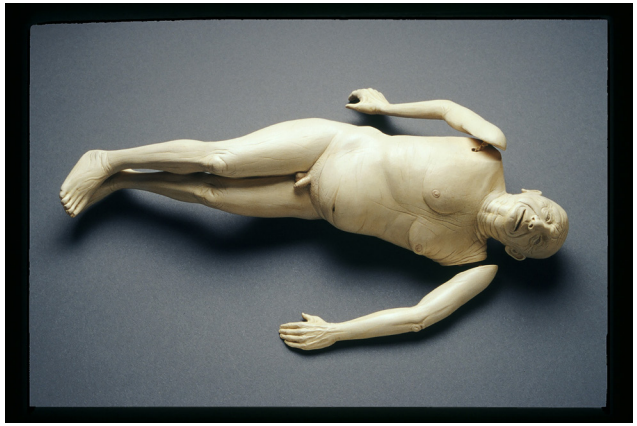


Shallow Relief(Wall Pieces), 1981-1983, clay
벽걸이 용 저부조 점토 작품 (1981-1983)

Shallow Relief(Wall Hanging), mid-1980s
1980년대 중반에 제작한 벽걸이 용 저부조 작품

It was early 2000 I began tiring of the whole process of working primarily two dimensionally. I had to see these figures come off the wall and realize them fully 3-D. This meant going from being a painter essentially to becoming a sculptor. I honestly didn't know what I was doing. I had to go back to school to learn anatomy. I had to learn how to make a free standing figure that could stand on its own. So I began working small and called the figures "dolls" hoping the viewer would forgive me for their stiffness and stylization.

1



2000년 초에 이르러 나는 평면작업이 주를 이루는 작업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나는 인물상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완전한 입체 조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화가에서 조각가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해부학을 배우기 위하여 다시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리고 온전하게 독립적인 인물상을 만드는 방법을 습득했다. 그래서 딱딱하고 양식화된 작은 인물상들을 관람객들이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인형들"이라고 불리는 조각 작업을 시작하였다.

2

3

1,2,3 3D Human Figures in early 2000
입체적 3차원의 작은 인물상 초기 작품

It has now been approximately 20 years since I transitioned into sculpture. I wanted to see if I could grow the scale of the small dolls into large figures. My hope was to capture and hold the attention of the viewer so they might get inside the skin and feel the feelings of the characters. Each character has their own story which motivated the making of them. Sometimes it's evident but not always. Hopefully they will invoke something from inside the viewer each figure is deeply felt and though I have favorites, all of them are not only near and dear to me, they are a piece of me.

내가 조각가로 변신한 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나는 작은 인형들을 커다란 인물상으로 발전시키고 싶었다. 나의 작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어내고 그들이 작품의 표면 아래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캐릭터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각각의 캐릭터는 탄생 동기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

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명백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캐릭터들이 관람객의 내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각각의 인물상은 모두 짙은 감성을 담고 있다. 비록 내가 선호하는 인물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가 나에게는 밀접함과 소중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내 자신의 일부이다.

1

2

3

1,2,3 Old Works
예전 작업

Making a skull in my studio
본인의 스튜디오에서 두개골 제작 중인 팁 톨랜드

Sanding down the bust "Painting the Burning Fence" after it's fired. The figure on the right is "Good News from the Battlefront" and the unfired large figure in front is "Pretty Pretty Baby" 2007
흉상 〈불타는 울타리 페인팅〉 소성 후 사포로 마무리
오른쪽 작품은 〈전선에서 온 좋은 소식〉.
앞쪽 소성 전의 대형 인물상은 〈너무 너무 예쁜 아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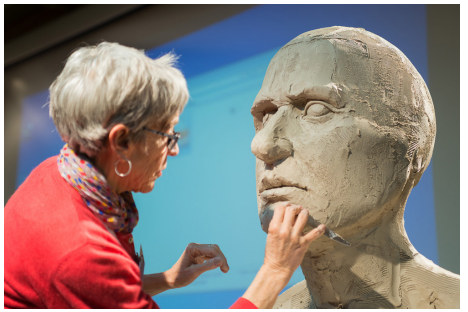
Here we are, me and "MOnkey MInd"(2010) getting our photographs taken

〈원숭이 마음〉(2010)과 함께 사진 찍기

Hollowing out another twice life size bust as part of the Three Jester series. "MUM", 2011-2012

3명의 어릿광대 시리즈 중 하나인 실물 2배 크기의 흉상 〈엄마〉의 내부를 파내는 작업, 2011-2012

This piece is one of three Jesters. "Surely", 2011-2012
3명의 어릿광대 시리즈 중 하나인 〈확실히〉라는 제목의 작품, 2011-2012



1

2

3

1,2,3 Demonstrating at NCECA on a twice life size bust, 2012
NCECA 에서 진행된 실물 2배 크기의 흉상 작업 과정 시연, 2012

At Portland Museum of Art in Portland Oregon in front of "Teen with Albinism", 2014
〈색소 결핍증에 걸린 십대〉 앞에서 진행된 오레곤 주 포틀랜드 미술관에서의 강연, 2014

During a residency at Hollins Universtity trying the ears on "Fool", 2016
홀린스 대학 레지던시 중 〈어릿광대〉에 귀를 붙이는 작업 시도, 2016

Working on a small piece in Taiwan during the Biennial.
"Her Will", 2018
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에서 소규모 작품인 〈그녀의 의지〉 작업, 2018

Getting the legs correct for "Her Will" in Taiwan during the Biennial, 2018
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에서 〈그녀의 의지〉 다리 부분 수정 작업, 2018

1

2

1,2 Working on a half scale figure as part of the movie "Empathy in Clay" produced by Northwest Designer Craftsmen, 2021
「NDC」 사가 제작을 맡은 영화 〈점토를 통한 공감〉 촬영에 사용될 실물 1/2 크기의 모형 작업 장면, 2021

Biography

Tip Topland (b.1950-)

BORN
• Pennsylvania, USA

EDUCATION
• 1981 M.F.A., Ceramics, Montana State University
• 1975 B.F.A., Ceramics, University of Colorado

TEACHING & RELATED EXPERIENCE
• 2016 Hollins University, Winter Term Instructor, Roanoke, VA, U.S.A
• 2004-2017 Sculpture Instructor, Gage Academy, Seattle, WA, U.S.A
• 1999-2015 Sculpture Instructor, Seward Park Arts Studio, Seattle, WA,, U.S.A
• 2009,2015 Sculpture Instructor, Pottery Northwest, Seattle, WA, U.S.A
• 2007 Sabbatical replacement, Spring Quarter, Ceramics Instructor, University of WA
• 2006 NCECA Panel, "Deep Sources of Inspiration" Tip Toland, Richard Notkin, Adrian Arleo, Rick Newby, Portland, OR, U.S.A
• 2001 Art Instructor, Abstracting the Figure, Pratt Fine Arts Center, Seattle, WA, U.S.A
• 1998-2000 Handbuilding & Beginning Wheel Instructor, Bellevue Community College, Bellevue, WA, U.S.A
• 1990-2007 Instructor, Coyote Central, Seattle, WA, U.S.A
• 1991-1997 Art Instructor, Pacific Rim Camp for the Arts, Evergreen State College, Stanwood, WA, U.S.A
• 1996 Ceramic Instructor,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 1990-1996 Art Instructor, Pratt Fine Arts Center, Seattle, WA, U.S.A
• 1995-1996 Ceramic Instructor and Consultant, Pacific Arts Center, Seattle, WA, U.S.A

EXHIBITIONS
• 2021 *Empathy in Clay*, Bellevue Art Museum, Bellevue WA, U.S.A
• 2021 *Fairy Tale*, Traver Gallery, Seattle, WA, U.S.A
• 2020 *Women Working in Clay: Ten years of Telling the Story*, Valentine Museum, Richmond, VA, U.S.A (Group)
• 2019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cheon, Korea (Group)
• 2018 *Taiwan Ceramics Biennale*,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Taiwan (Group)
• 2018 *Like Life: Sculpture, Color, and the Body*, Met Breuer, New York, NY, U.S.A (Group)
• 2017 *Fall out*, Traver Gallery, Seattle, WA, U.S.A
• 2014 *THE PERSECUTION OF PEOPLE WITH ALBINISM IN TANZANIA*, Portland Art Museum, Apex Gallery, Portland, OR, U.S.A
• 2013 *Body and Soul: New International Ceramics*, Museum of Art and Design, NYC, NY, U.S.A (Group)
• 2012 *Return*, Barry Friedman Gallery, New York, NY, U.S.A
• 2008 *Melt*: The Figure in Clay, Bellevue Museum of Art, Bellevue, WA, U.S.A

AWARDS
• 2019 Grand Prize Winner,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2019, Icheon, Gyeonggido, Korea
• 2017 Zanesville Prize, Best of Show for Contemporary Ceramics, Zanesville Museum of Art, Zanesville, OH, U.S.A
• 2014 United States Artist, Windgate Fellowship Award, Chicago, IL, U.S.A
• 2007 Fellowship from Washington State's Artist Trust, U.S.A
• 2005 First Place, Groot Foundation Award, Virginia, U.S.A

COLLECTIONS
• Korea Ceramic Foundation, Icheon, Gyeonggido, Korea
• Racine Museum, Racine, WI, U.S.A
• Crocker Art Museum, Sacramento, CA, U.S.A
• Daum Museum, Sedalia, MO, U.S.A
• Museum of Art & Design, N.Y.C. NY, U.S.A
• Metropolitan Museum of Art, N.Y.C. NY, U.S.A
• Nelson Atkins Museum, Kansas City, MO, U.S.A
• The Eleanor Wilson Museum, Hollins University, Roanoke, VA, U.S.A
• Herberger Institute for Design and the Arts,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U.S.A
• Yellowstone Art Museum, Billings, MT, U.S.A

팁 톨랜드 (b.1950-)

출생
• 미국 펜실베이니아

학력
• 1981 몬태나주립대학교, 도예전공, MFA
• 1975 콜로라도 대학교, 도예전공, BFA

강의 경력
• 2016 홀린스 대학교 겨울학기 강사, 로어노크, 버지니아, 미국
• 2004-2017 조각 강사, 게이지 아카데미, 시애틀, 워싱턴, 미국
• 1999-2015 조각 강사, 수어드 파크 아트스튜디오, 시애틀, 워싱턴, 미국
• 2009,2015 조각 강사, 도예가 노스웨스트, 시애틀, 워싱턴, 미국
• 2007 안식년 교체, 봄학기, 도예 강사, WA 대학교
• 2006 NCCA 패널, "깊은 영감의 원천" 팁 톨랜드, 리처드 노킨, 아드리안 알레오, 릭 뉴비, 포틀랜드, 오리건, 미국
• 2001 미술 강사, 인물 추상화, 프랫 미술 센터, 시애틀, 워싱턴, 미국
• 1998-2000 핸드빌딩 & 비기닝 휠 강사, 벨뷰 커뮤니티 칼리지, 벨뷰, 워싱턴, 미국
• 1990-2007 강사, 코요테 센트럴, 시애틀, 워싱턴, 미국
• 1991-1997 미술 강사, 환태평양 예술 캠프, 에버그린 스테이트 컬리지, 스탠우드, 워싱턴, 미국

전시 경력
• 2021 ≪점토를 통한 공감≫, 벨뷰 아트 뮤지엄, 벨뷰, 워싱턴, 미국
• 2021 ≪동화≫, 트래버 갤러리, 시애틀, 워싱턴, 미국
• 2020 ≪우먼 워킹 인 클레이: 10년의 이야기≫, 발레타인박물관, 리치몬드, 버지니아, 미국 (그룹전)
• 2019 ≪국제공모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 경기도, 한국 (그룹전)
• 2018 타이완국제도자비엔날레, 잉거도자박물관, 신타이베이, 대만 (그룹전)
• 2018 ≪라이프 라이크: 조각, 색, 몸체.≫ 멧 브루어, 뉴욕, 미국 (그룹전)
• 2017 ≪폴 아웃≫, 트래버 갤러리, 시애틀, 워싱턴, 미국
• 2014 ≪탄자니아에서 앨비니즘을 가진 사람들의 박해≫, 포틀랜드 미술관, 에이펙스 갤러리, 포틀랜드, 오리건, 미국
• 2013 ≪몸과 영혼: 새로운 국제 도자기≫, 아트 디자인 박물관, 뉴욕, 미국 (그룹전)
• 2012 ≪리턴≫, 배리 프리드먼 갤러리, 뉴욕, 미국
• 2008 ≪용해: 피규어 인 클레이≫, 벨뷰 아트 뮤지엄, 벨뷰, 워싱턴, 미국

수상
• 2019 대상,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이천, 경기도, 한국
• 2017 제인스빌상, 현대 도자기 부문 최우수상, 제인스빌 미술관, 제인스빌, 오하이오, 미국
• 2014 미국 아티스트상, 윈드게이트 펠로우십 어워드, 시카고, 일리노이, 미국
• 2007 아티스트 트러스트의 펠로우십, 시애틀, 워싱턴 D.C., 미국
• 2005 1위, 그루트 재단상, 버지니아, 미국

작품 소장
• 한국도자재단, 이천, 경기도, 한국
• 라신 미술관, 라신, 위스콘신, 미국
• 크로커 미술관,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미국
• 덤 현대미술관, 시데일리아, 미주리, 미국
• 아트디자인미술관, 뉴욕, 뉴욕, 미국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뉴욕, 미국
• 넥슨앳킨스박물관, 캔자스시티, 미주리, 미국
• 일리노어 윌슨 박물관, 홀린스 대학교, 로어노크, 버지니아, 미국
• 허버거 디자인 예술 연구소,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템피, 애리조나, 미국
• 엘로스톤 미술관, 빌링스, 몬태나, 미국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Invitational Exhibition of Grand Prize Winner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2019
<Tip Toland: A Fairy Tale>

Organizer Gyeonggi-do Province
Host Korea Ceramic Foundation(KOCEF), KICB2021 International Committee
Period October 1 , 2021 - November 28, 2021
Venu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Online Platform (www.kicb.or.kr)

Exhibition

President, Korea Ceramic Foundation Yun CHOI
General Director Dong Kwang CHANG
Director,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Kihoon CHANG
Leader, Exhibition Team Youngmoo CHOI
Coordinators Minhye PARK · Hanbyul KIM
Assistants Sunkyu HWANG · Juyoung SHIN · Kyeong YI · Jisu PYO
PR Jihee KIM
Space Designed by Nex Design Planning
Space Constructed by T&B Total Construction
Transported by TNL Dasan Art

Catalogue

Publisher Yun CHOI
Publish Korea Ceramic Foundation(KOCEF)
First published on October, 2021
Graphic & Catalogue Designed by Jaeho SHIN
Photo Jwa Kyu LEE Tae Eun KIM
Translator Sooyul MO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opyright by Korea Ceramic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ontext of reviews.

종이책(book) ISBN 979-11-85378-52-7 03630
9 791185 378527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19국제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팁 톨랜드: 동화>

주최 경기도
주관 한국도자재단, KICB2021 국제위원회
전시기간 2021년 10월 1일 ~ 11월 28일
전시장소 경기도자미술관
온라인플랫폼 (www.kicb.or.kr)

전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비엔날레추진단장 장동광
경기도자미술관 관장 장기훈
전시교류팀장 최영무
진행 박민혜 · 김한별
지원 황선규 · 신주영 · 이경 · 표지수
홍보 김지희
전시 디자인 넥스디자인플래닝(주)
전시 시공 (주)티앤드비토탈건설
작품운송설치 (주)티엔엘다산아트

도록

발행인 최연
발행처 한국도자재단
발행일 2021년 10월
그래픽 및 도록 디자인 신재호
사진촬영 이좌규 김태은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문수열

© 한국도자재단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한국도자재단에 있으며 본 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책(e-book) ISBN 979-11-85378-53-4 (PDF) 05630
9 791185 378534